

j.j.magazine

THE SOUNDS OF
NATURE ARE
THE MODELS FOR ART,
THE OLDEST
FORM OF SONG.

AND EVEN
THE WIND HAS
DIED DOWN,
CAN STILL
BE SENSED.

MUSIC FILLS

AND

FULFILLS SPACE,

EXISTS IN TIME,

BUT HAS

NO FIXED

LOCATION.

MONTHLY
LIFE
DESIGN
MAGAZINE

MEMBERSHIP
MAGAZINE OF
GRAND HYATT SEOUL

October 2013

+ NO.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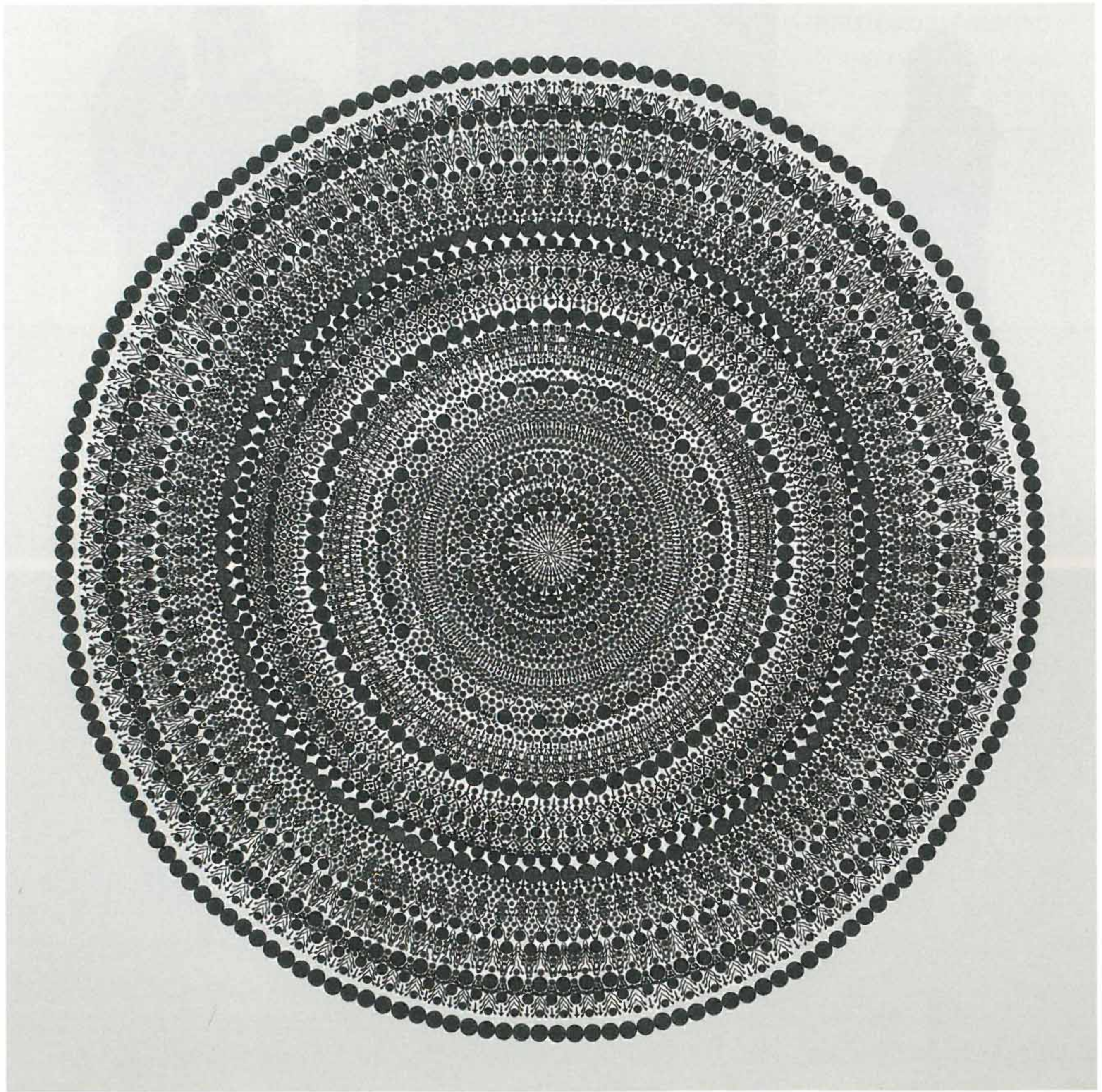
2

Cloud Walker, 2013,
Fibreglass, wooden rake, saree, resin, stone, steel,
186x115x9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3

CFC76249559, 2002, Bronze,
92 x 41 x 9 (cm), Edition of 3
© Jake and Dinos Chapman,
Photo Credit: Stephen White



4

Square a circle 3, 2013,
Bindis on composite panel
Diameter: 15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바티 커와 채프만 형제의 개인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내심 기뻐다. 자주 접하지 못한 인도미술과 불쾌하거나 천박해 보일 수 있을 만큼 과감한 작업을 하는 개성 강한 작가의 작업을 동시에 서울에서 보는 건 결코 흔치 않은 일이기에. 바티 커 개인전은 10월 5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Anomalies>라는 제목으로, 채프만 형제 개인전은 12월 7일까지 서울 청담동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The Sleep of Reason>이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Anomalies, BHARTI KHER

바티 커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기억, 문화적 신화 그리

고 사회적 계급체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왔다. 커의 다양한 작품은 '발견된 오브제'로도 불리는데, 그녀가 우연히 주운 물건을 한데 모아 새로운 배열을 통해 이미지를 귀결하거나, 관습적인 오브제를 예상치 못한 조형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생김새가 평범하지 않다. 커는 "앞으로 나의 모든 작업을 '이형'이라고 불러도 좋다. 나는 늘 작업을 하기 전에 하나의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데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어울리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자주 떠올린다. 그렇기에 작업은 이형적인 형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작품 <A Vegetarian Lion, a Slippery Fish>은 바티 커의 전시를 잘 대변해주는 작품 중 하나이다. 대표작이라

고 단정 지어 말할 순 없지만, '이형'의 의미를 잘 풀어낸 작품일 수는 있다. 오래된 탁자 위에 목각상이 놓여 있다. 목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부처, 각종 우상신을 비롯해 성인남녀, 어린아이, 동식물 등이 조화롭게 모여 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한 풍경은 조금 낯설다. 다른 이념과 사상을 지닌 종교의 신과 사람 그리고 동식물이 함께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이치에 맞지 않다. 덕분에 우리는 이형의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점은 목각상이 모두 관객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람객이 이 작품을 볼 때 목각상이 지닌 우상이라는 이미지처럼 스스로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길 바라는 작가의 염원이 담

겨 있다. 인류의 바다처럼 우리 또한 영원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엔 무수히 많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있다.

인도 여성이 미간에 붙이는 동그란 점 '빈디(Bindi)'로 작업한 작품, <Square a circle 3>는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이 작품은 이형적인 형상이라기보다 아름다운 형상에 가깝지만, 만드는 재료에서 오는 이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먼발치에서 보면 붓으로 그린 아름다운 원형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품에 좀 더 다가가면 붓이 아닌 무수히 많은 빈디가 중첩되거나 쌓여 만들어진 원형임을 깨닫게 된다. 그것

이 하나의 레이스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대한 풍경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형적인 면이 가장 부각되는 것은 그녀가 정교하게 만든 조각작업인데, 그중 대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건 여신 시리즈의 하나인 <Cloud Walker>이다. 인도의 전통 의상인 사리를 걸쳐 입은 여신상이 우아하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다가가면 과감히 울린 다리 때문에 성기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사리 또한 잘 갖춰 입었다기보다 대충 걸쳤는데,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신이기에 그녀의 행위에서 사리 또한 전혀 다른 의미로 부각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통의상이지만 이 작업에서는 자신을 보호

하는 방패가 될 수도 있고, 삶의 굴레일 수도 있는 것이다. 왼손에는 갈퀴를 쥐고 있다. 이는 권력을 쥐고 있는 여성적인 면모와 강인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인도 여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이렇듯 하나의 여신상은 전반적으로 이형적인 존재로서, 관념을 뒤흔들고 있다.

**The Sleep of Reason,
JAKE AND DINOS CHAPMAN**

채프만 형제는 다양한 재료와 작업 방식, 주제를 통해 인간의 존재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쟁점을 지속적으로 다뤘다. 이들의 작업은 때로 지나치리만큼 불쾌

6

A vegetarian lion, a slippery fish, 2013.
Table, plaster, paint, 70 figures,
118x172x11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BARTI KHER

바티 커는 196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현재 인도 뉴델리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근래의 주요한 개인전 및 그룹전시 경력으로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소재의 퍼스트 국제 현대미술 비엔날레 2012, 파리와 델리 그리고 뭄바이의 풍파두 센터 2011, 호주 퀸즐랜드 아트갤러리 2010, '도쿄 예술의 만남: 변화'라는 제목의 도쿄현대미술관 2010, 그리고 스위스의 쿤스트뮤제움 툰의 3인전이 있다. 그 외에도 내년 2014년에는 상하이 록번드 미술관에서 대규모의 개인전을 준비 중이다.

Photo credit ANAY MANN



골동품 가게에서 파는 작품일 뿐이다. 채프만 형제는 기억에서 사라진 인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한 것이다. 파괴하고 훼손했지만, 그렇기에 다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게 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역설적이게도, 괴기스럽게 변형된 주인공들은 다시 한 번 세상의 빛을 보며 아름답고도 사랑받는 대상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처럼, 채프만 형제의 작품의 주제는 무겁지만, 보여주는 방식은 위트가 넘친다. 이들의 위트가 절정을 치고 올라온 작품은 <Chapman Family Collection(채프만 가문의 소장품)>이다. '지난 70여 년간 채프만 혈통의 후손들이 심혈을 기울여 수집한 것으로 민속지학적으로 희귀한 가치를 갖는 다수의 수집품을 비롯해, 토착 종교와 관련되어 한때 숭배의 대상이었던 유물도 포함돼 있다'라는 하나의 가정으로 작품을 준비했다. 이렇게 탄생한 소장품은 원시적이면서도 근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재미있게도 모든 작품에는 '맥도날드'가 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방패엔 맥도날드 로고가 적혀 있고, 원시부족이 믿는 우상신의 얼굴은 '빅맥'이거나 맥도날드 캐릭터인 '로날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들의 소장품은 모두 'Camgib', 'Seirf' 그리고 'Ekoc' 지역에서 수집된 전리품인데, 지역 이름을 뒤집어보면 '빅맥', '프라이드', '코카콜라'에서 영감을 받은 걸 금방 알아챌 수 있다.

BHARTI KHER, JAKE AND DINOS CHAPMAN

바티 커와 채프만 형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아래서 작가의 의식과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보여주는 것이 전부는 아닐 테다. 그렇기에 이들의 작품을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평가 내릴 수도 없다. 만약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이번 작품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다만 작품에 숨겨진 의도, 괴상함의 실체를 통해 보이고자 하는 틈을 내다본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다가올 것이다. 하나의 작품엔 그들이 느꼈을 사상과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사상이 자리 잡았던 시대와 그들이 현재 어떠한 존재로서 각인되고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들의 작품에는 무수히 많은 시간과 공간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끝나지 않은 여운이 남는 건 그런 시간을 경험해나가는 노력일 테다.